

선천성 심장병 수술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건강대조군과의 비교 -

윤현숙 · 김미정 · 이문경 (한림대학교)

한국심장재단의 지원으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대조군과 비교하여 삶의 질의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삶의 질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객관적인 신체 상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지를 밝혀내어 선천성 심장병 수술 환자가 수술 후에도 만족스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8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심장재단의 지원으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11,139명 중 최종 4,7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984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현재 20세가 넘는 성인과 같은 연령대의 건강대조군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AS를 활용하여 심장수술환자와 건강대조군의 삶의 질의 정도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삶의 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첫째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환자의 삶의 질이 신체적 건강상태를 제외하고 건강대조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환자의 심리적 만족을 설명하는 자아존중감, 행복감, 우울 및 불안에 가족결속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건강대조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선천성 심장병 수술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을 제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천성 심장병 자녀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보다 성숙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수술환자의 경우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상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과잉 보호받거나 다르게 양육되지 않도록 알려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